

22절에 하나님은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작은 자, 약한 자들은 누구일까?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작은 너희가 천을 이루고, 약한 너희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결론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결론이다.

1.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1) 이것이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고, 본래의 축복이다.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인생, 거기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겨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본래 인생 아니다.
 혹시 실패하고, 남모르는 문제 앞에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본래 인생 아니다.

① 하나님은 본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든 것이다.

그 축복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심하게는 약한 일을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인간은 본래 최고의 존재였다.

② 첫 인생 아담이 타락한 영, 어둠의 영이었던 사단에게 속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엡2:1). 이후에 인간은 계속 불순종과 어둠을 만드는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고(엡2:2). 영원한 고통과 심판의 길을 향해 가게 된 것이다(엡2:3)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망에서 건지시고(롬8:1-2), 이 땅
 에서 계속 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일3:8),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요14:6)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끝나는 것이다(골1:13-14)

2) 실패하고 무너졌는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둠이 내 안에 있고,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3)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흑암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삶의 모습이다. 나 개인만이 아니다.

가정, 민족, 나라까지 세계 살리는 강국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미국, 한국이 그 증거였다)

2.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1) 그 분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19-20절).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① 하나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요1:1-4, 요8:12)

②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요, 그 빛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다(엡5:8)

그때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20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2)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21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다.

① 단순히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땅(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다.

②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온통 세상에 하나님 없는 흑암의 나라만 가득하니 하나님이 백성도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요12:46)

3)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22절). 이것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언약이다.

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아신다. 내 힘으로는 어둠의 영을 못 이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다(오력)

이 언약을 잡을 때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

② 나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흑암의 권세를 뛰어넘는 것이다(영적 싸움)

악령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다.

3. 이 세가지 언약이 나의 오직이 될 때(시간표) 내 인생이 진짜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25의 축복).

1) 오직 그리스도이다.

①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끝내고, 그 배후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히12:2).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 왜 두려움, 절망, 미움, 분노가 오는가?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문제만 보기 때문이다.

문제, 위기, 고통이 왔는가?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그 분이 나의 오직이 되는 시간이다.

② 이때 흑암이 꺾인다. 모든 문제는 유일한 증거가 되고(유일성),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된다(재창조)

그때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Heavenly Talent)

2)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다.

① 그 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다(눅17:21, 롬14:17)

나도 내 마음,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② 내 가정에서, 직장가서, 사업체에 가서 먼저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마6:33)

어디를 가든 흑암부터 꺾으라. 그때 영적 망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마12:28)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Heavenly Mission).

3)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①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다(요14:16-18). 그 분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Heavenly Power)

다른 욕심을 버리고(왕하2:9), 평상시에, 약할 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시로 이 능력을 구하라(엡5:18)

② 이 성령은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한다(고전2:10).

시공간 초월, 빛의 능력,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난다. 이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이다.

결론-내가 작고 약한 자로 보이는가? 그런 나를 강국으로 세우는 25의 증거들이 평생에 계속 되기를 축복한다.